

항몽유적에서 보내는 9월의 편지

9월은 풍요로운 추석이 있는 달이고, 가을의 시작입니다.
천고마비의 계절 가을. 어느덧 하늘은 저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.

지난 7월 항몽유적 직원들이 땀 흘려 파종한 코스모스가 어느새 한들 한들
춤을 추며 지나가는 올레길을 유혹합니다.

코스모스 너는 가을의 새아씨. 외로운 이 밤에 나의 친구로다. 라는 가사처럼
이 가을 코스모스는 당신의 친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.

그리고 눈이 부시게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편지를 써
보는 것도 이 가을에만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입니다.

걷기 좋고, 사색하기 좋은 9월.
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으로 가을여행 떠나보세요.
당신의 친구 코스모스가 빨리 오라고 손짓합니다.

To. 항몽

.....
.....
.....
.....

From. ○○